

중동아프리카의 혁신적인 난민경제와 협력난민도시의 확립방안

|서 대 성*|
Seo, Dae-Sung

The way to establish the Innovative Refugee-economies and Cooperative Refugee-urban for Middle East & Africa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s in the past, will be a collaboration between the Middle East, Africa and Europe, is to create a win-win passway. Each has tried also to support and enable the role of the triangle and the Middle East to the cross-economic cooperation in Europe, Middle East-Africa.

The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among them can act in the same composition as the new substitution. In the long term, it will have to solve the problems of religious and social issues and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MNCs make refugees help to assist activities, then it is to a big change in the market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Each government should also provide a smart city(the living grounds of 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like Israel of which built a smart local and spatial concepts for refugees to adapt social changes.

The results, are that need aggressive moves on refugee issues which presented the security settlement and the communities in the Mediterranean area with the cross-cooperation about refugees. Supporting skills training to them to be technical workers, it can be actively participated them in the cultural convergence society which companies export or utilize. Mediterranean areas is

* 성결대학교 조교수, E-mail: dais3@sungkyul.ac.kr



not to increase the sunk cost and unemployment and it shows the importance and expectations.

[Key Words: Refugee-Economy, the Middle East Africa, EU, Cross-cooperation, Refugee-Urban]

I. 서론

1. 연구의 목적

현재 중동-아프리카의 난민이 EU에 미치는 경제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난민전후에 양 지역 간의 테러 및 교역, 에너지 등의 협력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중동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난민은 EU로 향하고 일부는 동유럽발 칸국가들을 경유하고 있다. 과거 아랍인들은 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개상이었고, 아프리카와 유럽을 교차하는 다리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유럽은 아랍인들의 이민과 난민으로 경제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이 바뀌고 있다.

이는 난민 경제의 비용으로 나타나고 영국의 유럽연합의 탈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영국으로 비EU국적 자들의 유입은 10년 전보다는 그 이민자 수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나, EU국적자의 이민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앞서서 이탈리아와 영국도 시리아 난민구조를 한때 중단하게 했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변 유럽으로 난민을 분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프리카-중동 출신 난민의 구조 활동의 중단이 세계적인 이슈이나, 영국의 EU탈퇴의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난민의 일부 문제가 현재의 브렉시트로 이어진 것처럼,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 유럽연합과 아시아도 함께 해결해야 하기에, 이를 새로이 조명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난민 발생 예방책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내고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난민캠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오히려 유럽

의 난민선 구조작전이나 국가 간의 난민할당이 이들을 유럽으로 집중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3년 이후 1년간 지중해 연안에서 약 15만 명의 난민을 구조하였다. 제2차 대전 이후 시리아 난민만 약 460만 명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 유럽은 고육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난민에게 좀 더 합법적이고 안전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4년 아프리카의 지중해를 건너다가 사망-실종된 사람은 약 2,500여명이나 된다.

아프리카-중동과 발칸유럽을 연결하는 루트는 교역을 위해 과거에도 현재에도 항상 개방되어야 한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12만 명이 지중해 통해 EU에 밀입국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구조에만 매월 120억 원 부담했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이들 이민자들과의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과거 밀입국자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이 현 유럽사회가 고통을 겪고 있다. 에티오피아-에리트레아 등을 포함해서 유럽으로 밀입국하려던 아프리카 난민들이 리비아 동쪽 지중해 부근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중해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남쪽에서도 밀항을 시도했던 수백 명을 태운 난민 어선이 침몰했으며, 이들 사망자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위해 유럽행 선박에 몸을 실었던 아프리카 난민들이었다.

중동의 정세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2011년 아랍의 봄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6만9000명 이었던 것이, 지중해를 건너 EU 지역 안으로 밀입국한 수는 2014년 12만4,380명(8월 기준)에 이르렀다. 2013년 람페두사에서 밀항선 침몰로 368명의 참사를 계기로 인해 이탈리아 해군의 난민 구조작업에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난민유입의 증가를 유발시켰다. 밀항이 더 비번해지고 선박의 전복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급증했다. 이는 2014년 밀항으로 인한 사망자는 1,880명으로 2013년 600건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은 2~3달러로 이들이 평균 2,500달러를 지불하고 지중해의 죽음을 선택한다. 이는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정치·사회적 불안정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내전 중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며 이들 난민이 62만 명에 달한다. 모로코는 밀항선 탑승 대기자가 4만 명이며, 리비아는 불법 입국준비 난민은 30만 명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이들 난민들에게 지불되는 비용보다는 차후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될 경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난민 경제를 효과에 대해 논하고자한다. 세계의 대륙이 교차하는 지역측면에서 볼 때, 중동아프리카과의 경제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투자가 요구된다. 아프리카-중동지역은 난민들을 통해서 유럽제품의 소비지역으로 전환되고, EU는 중동의 문화와 대체수요로 인해 급격히 변화를 가져왔다.

개방과 위기, 아프리카, 중동과 유럽은 폐쇄와 안정으로 이를 상반대게 해결할 수는 없다. 과거 1989년 동유럽개방, 2004년 동유럽발칸의 EU가입, 2010년 유럽발 금융위기, 2011년 아랍의 봄 개방이후에도 테러와 난민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아프리카-중동과 유럽 간의 급변하는 혼재된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제교역과 협력, 난민도시건설 등 긍정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2. 연구방법과 한계범위

본 논문의 연구는 시리아를 비롯해서 난민 대책을 위해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난민 수용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종교적 측면에서 연구는 난민과 함께 유입된 아랍 문화가 현재 중동에서 발생한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유럽에서도 유발하는 한계를 지니며, 선별적 수용에 대한 난민경제의 분석은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난민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난민이 미국 사회문화에 비교적 쉽게 적응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해결대안으로 난민도시를 구축한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과거유럽이 세운 14-15세기 게토지역(유대인 정착촌)처럼, 폐쇄적 구역에서 벗어나 교차 적용할 수 있는 난민도시로 수용해야 한다.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이스라엘의 사막난민도시가 혁신창업의 대학도시로 탈바꿈된 것처럼, 이는 장기



적인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교차문화 방안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시된다.

전통적으로 난민 연구가 내부로는 종교·문화·정치적 갈등문제로, 외부로는 대외정책으로 다루었고, 이에 대한 한계에서 벗어나 난민들의 경제적 충족과 개방 경제로 초점을 두고 다루고자 한다. 이란과 쿠바처럼, 개방화라는 실익차원에서 해빙무드가 이들 지역과의 종교적 관계성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중동 아프리카의 문제를 구미와 아시아가 광범위한 교차협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중동아프리카 난민이주의 분석과 역할

1. 선행연구와의 비교

최근에 Fratzscher & Junker (2016)는 난민의 비용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독일로 난민의 대량 유입에 대한 논쟁은 단독으로 단기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젊은이들의 가치는 투자로 초기 비용을 변환 할 수 있고,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러한 지출은 상당할 수밖에 없으나, 난민의 성공적인 통합이 장기적인 경제적 잠재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 시장에서 난민유입으로 기대고용의 성장전망은 대다수가 자격의 부족으로 처음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저하 될 수 있으며, 취업을 할 사람은 평균 독일어 가능 노동자보다 더 생산적 일 수있다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익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비용을 초과한다. 이 연구는 장기적으로 통합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경제적 잠재력을 대략적으로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했다. 그는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 (Baseline Methodologies)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은 낙관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를 조사했다. 이를 시뮬레이션 했으나, 예측이 명확하고 자세



한 연구보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측정했다.

문제의 핵심은 난민의 통합이 충분한 추진력을 얻게 될지의 여부를 살펴 볼 때, 기타 비용 등을 초과로 인해 노동 시장 통합이 부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난민들이 여전히 5-10년 후 독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분석은 비난민의 1인당 국민 소득의 측면에서 경제 전체에 혜택의 장점을 강조하여 장기적으로 비용을 초과하게 된다.

난민 경제측면에서는 국가적의 필요성에 따라 비교해서 노동시장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전의 연구를 보면, TOGRAL KOCA (2015)은 시리아를 탈출 난민은 배타적 군사 및 기술이 국경 사례를 포함한 보안 프레임 워크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 연합 (EU) 및 기타 국가 개발도 책임을 가지고 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국의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 유럽연합 (EU)은 이주 정책을 특징짓는 국경 안보관리 관행은 표면적으로는 지중해에 걸쳐 인간의 비극에 기여했다.

점차 이러한 주제에 대한 국가마다 수위조절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Brenke (2015)의 조사는 망명 신청자의 37 %가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의 처음 7개월 만에 망명 절차를 완료시, 보호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독일의 노동 시장에 이러한 난민의 통합은 수많은 기여를 했다. 초기 난민에 어려움은 낮은 실업자의 수는 난민 국적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증가했다. 예를 들어, 체류 허가과 독일에 살고 있는 모든 시리아 인 중, 개인에게 지불하는 사회 보안이 보다 더 많은 실업자 개인에게 있었다. 그 비율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에서 사람들이 약간 더 낮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크게 인식하여 난민들이 독일에 정착해서 독일어 습득을 통해, 더 완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재 유럽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난민정책에서 분류해야 함을 강조했고 현재 난민 역할과 EU의 요구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Moses Okello (2016)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를 전쟁과 박해의 요소를 설명했다. 그의 논문은 빈곤과 높은 실업, 소셜 미디어의 영향 등을 포

함한다. 또한 아프리카는 시민의 열망을 충족 할 필요가 있으며, 유럽에 대한 법적 마이그레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이 협력을 할 수 있다.

실제로 1960대와 2016년의 난민·실업과 이주 및 이민에 따른 정부 정책, 경제 조건, 사회 조건 등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있기 때문이다. Basheti et.al (2016)은 Alzatory 캠프에서 시리아 난민이 대다수 심리적 고난으로 고통을 겪고, 난민의 절반은 그들과 캠프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의료에 대한 차별을 제시했다. 난민촌의 경우 텐트에 거주하는 난민은 트레일러에 머무는 난민들에 비해 차등의 불만을 표시했다. 이러한 이슈를 본 논문에서는 난민도시를 제공해 주고 지원할 때,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 다른 선행연구로 Bolborici(2015)는 2011년 아랍의 봄의 시작은 유럽으로의 아랍인의 탈출과 2015년에 그 절정에 다다르며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구 문화와 이슬람, 두 개의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 아랍인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역사적 고려와 아랍 세계의 전통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서양 민주주의 패턴을 확장하고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정신은 새로운 충돌이 발생케 한다고 본다. Rogers, Kate (2015)는 난민 위기는 경제에 활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2015년 하반기 유럽에 대한 도전적인 기간이었다. 성장이 격려하고 있지만 유로존이 다음에 하나의 위기로 무너질 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었다.

현재 시리아 난민이 최근 유입에서 크지만, 그 유엔 통계에서 약 15만 시리아 난민으로, 터키와 비교해 보면 1.6 백만, 레바논 1.1 백만, 요르단 60만, 이라크에서 20만이 추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명 신청자 수의 증가가 반 이민 정착이라는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제기했다.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난민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소득 지원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지출상태는 경제적 자극이다. 난민들이 도착 시, 거의 또는 전혀 재산을 갖지 않기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원 받는 대부분을 지출 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이는 정부 지출에 대한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야 해야 한다.



그 대책의 성공의 여부는 새로운 난민유입이 통합 할 수 있는 국가운영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인구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GDP 성장을 높일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주민은 고령화 인구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완화 정책이 될 것이다. 유럽 인구의 47 %가 노동인구이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2050년 20% 미만 이 될 것이다. 이는 모국에서 전쟁과 박해를 탈출하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난민을 환영하는 것은, 유럽은 인구 고령화의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

2. 지역 간의 역사적 배경

남부 유럽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불법 이주로 잘 알려져 있다. 1990 년대 초반 이후, 북아프리카의 수천 명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도달하기 위해 지중해를 건넜다. 2006년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와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이주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인은 점점 일부는 유럽 이주의 거점으로 영역을 사용되었다.

이러한 이민자들은 세네갈, 감비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말리,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출신뿐만 아니라 콩고 민주 공화국, 카메룬, 수단, 아프리카의 뿔(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소말릴란드, 지부티), 심지어 아시아 등 국가와 지역이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추정치에 따르면, 마그레브(모리타니,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의 연간 65,000 ~ 120,000 명 중에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70~80%가 리비아를 통해 이주하리라 확신하고 20-30%는 알제리, 모로코를 통해 이주하려 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인 수만 명이 매년 지중해를 건너려 한다.

일반적으로 "빈곤"또는"위기"이민자들로 묘사하지만 이들은 종종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보통수준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회의 부족과 박해와 폭력 공포로 부터 이주한다. 비록 "보트 이민자"로 다루고 있지만, 많은 다른 방법으로 - 관광 비자 및 허위 문서를 사

용하여 페리나 차량에 숨어서 불법 이주한다. 또는 모로코에서 스페인과 고립된 영토인 Ceuta의와 멜리야의 둘러싼 담장 주위로 넘거나 수영해서 이주한다.

2015년 난민의 문제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북아프리카 리비아 도시 시르테와 테르나를 장악하면서 발생했고 이는 아랍의 민주화를 변질시켰다. IS가 리비아의 소거점 도시를 장악하고 리비아 내 IS의 세력 확대가 이 위험한 난민의 급증이 시리아 등 다른 나라로 이어졌다. 이 밖에 중동 난민의 경우,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의 반정부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 간의 갈등 등으로 더 확대된 요소가 있다. IS가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도 30명을 집단 살해되었는데, 이들은 기독교인들로 리비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있었다. IS의 납치와 참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리비아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불법 중개인어선들을 통해서라도 유럽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내 IS 세력 확대와 지속되는 내전도 리비아 난민의 급증 원인이다. 또한 중동 시리아 내전은 중동 내부의 종파갈등에서 유럽 난민과 EU의 분열로 확대되어, 파리·브뤼셀지역의 IS테러와 미국·러시아의 실익까지 표출되었다. 이는 국제사회 속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된 곳이다.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2016년 벨기에 테러도 이민자 3,4세는 유럽에서 출생했고 부모들도 벨기에에서 태어났어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쉽게 동화되어서, 정부도 이민자나 난민들이 사회적 고립과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

유럽 진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주요 대상으로 북아프리카를 고려하고 있다. 다양한 추정치에 따르면, 적어도 10 만 명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주 노동자는 이제 모리타니 알제리에 살고, 리비아에서 100~150 만 명, 이집트에서 주로 수단인 220~400만 명이 있으며, 튀니지와 모로코의 작은 집에서 수만 명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민 사회가 성장하고 있다.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횡단 사막 이남의 이주가 실질적으로 여러 내전과 서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 콩고 민주 공화국 등에 관련된 경제적 쇠퇴와 함께 리비아가 추구하는 '범아프리카 "이민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1990년대에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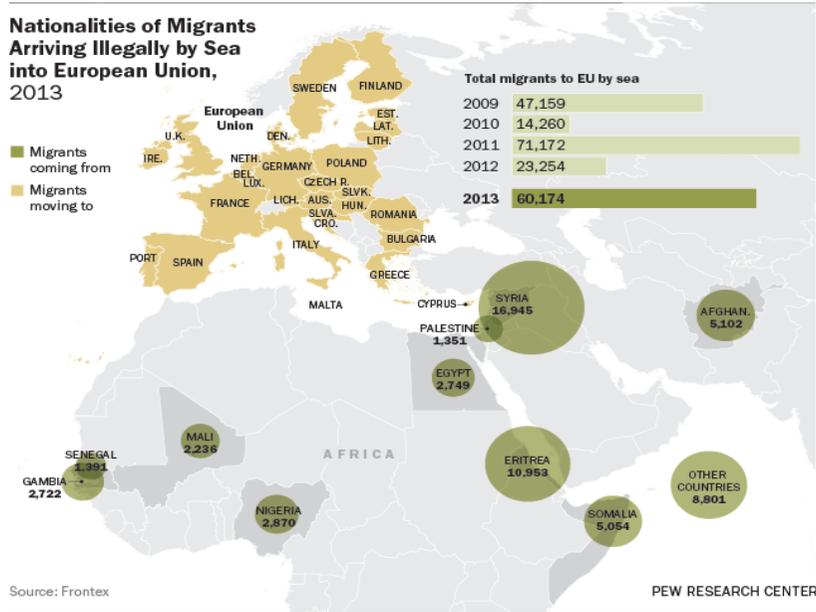
2000년 이후, 리비아 이민 반발은 다른 마그레브 국가 또는 유럽으로 이동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주 노동자수의 증가를 부추겼다. 이제 유럽의 국경 수비대에 의해 차단된 불법 이민자의 가장 큰 범주로써,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북 아프리카를 추월했다.

과거 알려진 역사를 통해 사하라 횡단 이주의 역사적 루트였다, 사하라 사막 횡단을 통해 (캐리벤) 무역, 정보, 순례, 종교 교육이 사하라 사막의 양쪽 사이에 집중적인 인구 이동이 있었다. 사하라 자체가 거대한 전환의 영역이며, 오아시스의 다양한 민족 구성은 인구 이동의 오랜 역사를 증언한다. 그것은 단지 식민주의의 출현과 함께했다. 거기에 국경도 현대적인 것도 없었다. 횡단 사막 이남의 이동성과 무역이 붕괴되고 있다. 곧 각국이 독립한 후, 그 기반은 현대 횡단 사하라의 이주 시스템으로 마련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유목민의 자발적 강제적 정착에서 발생했다. 사헬(Sahel)지역에서의 전쟁, 가뭄으로 이동의 두 가지 유형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 투아레그 같은 빈곤으로 (전) 유목민과 상인, 남부 알제리와 리비아의 건설 현장 및 유전에서 일하면서 이주를 시작했다. 둘째, 전체 사헬 지역에서 전쟁재발과 수천 명의 난민들이 리비아, 알제리, 모리타니, 이집트의 마을과 도시에 정착했다. 당시 이민들은 묵시적 환영을 받았다. 알제리, 모리타니,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주 노동자는 국가의 인구가 적은 부분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부합했고 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채워갔다.

1973년 석유 위기 이후, 남부 이웃국가의 노동자들이 리비아와 일부 알제리의 무더운 사막 이남의 내륙으로 이주가 증가하였다. 여기에 유정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일하기를 거부했다. 리비아는 신속하게 북아프리카의 이주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이집트인이었지만, 많은 수의 수단인들도 들어갈 수 있었다.

리비아, 알제리에 앞서 이동과 반유목민의 정착은 1990년 이후 횡단 사막 이남의 대규모 이주를 위한 단계를 마련했다. 이전의 수많은 유목민들은 사하라에 걸쳐 제품과 사람들을 밀반입으로 새로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난민 발생지역 및 정착 국가의 인구 규모

자료: Frontex, 2013

2. 아프리카 난민과 중동 난민의 상이점

아프리카 난민의 문제에서 중동 시리아 난민의 악화로 급속도로 전환된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의 언론이 시리아 (시리아의 쿠르드족 도시인 코바니 쿠르드족) 난민에게 향한 원인이 있다. 이는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는 보트에서 사망한 3살 된 아이란 쿠르디가 시리아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의 산유부국들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에는 시리아 난민 정착촌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들이 지금의 시리아 내전 격화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전쟁이 예멘 내전에서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쟁개입으로 인한 예멘의 내전 등 중동은 난민발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는 미국 및 서유럽의 무관심속에서 발생한 불안한 중동정세가 지속되고 이에 대한 국제기구의 무력한 대응으로 발생한 결과이었다. 사실상 국가행세로써, IS의 군사력이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까지 장악하고 있기에, 이들이 서유럽 행을 택하는 이유는 인접국인 레바논이나 요르단이 이미 난민들로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는 리비아의 범 아프리카 정책 때문이다. 1992년과 2000년 사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리비아에 부과 한 비행 영역제한 및 무기 금수 조치는 횡단 사막 이남의 전례 없는 이주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이동 경로 및 네트워크의 통합하게 된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리비아의 새로운 범 아프리카 정책의 일환으로, 알 - 카다피는 범 아프리카 연대의 정신에서의 리비아에서 일을 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인들을 환영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아랍” 북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한 목적지가, 리비아의 서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의 뿔 국가까지 광범위한 이민자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다. 금수조치 기간 동안, 주변 아랍 국가 지원의 인식 부족으로 실망한, 리비아 지도자 무아 마르 알-카다피는 그가 아프리카 지도자로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리비아 대외 정책의 급진적 전환에 착수했다.

리비아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민을 실행하는 것은 구조 조정과 세분화된 노동 시장을 증가시키는 일반적인 경향의 일부였다. 1980년대 초 이후, 낮은 유가와 금수 조치로 인한 경기 둔화가 리비아 인력을 현지인화(indigenize)로 주도했다. 그러나 리비아가 매력 없는 일자리를 취할 용의는 없었다. 걸프 국가들이 점점 비숙련 노동력에 대한 아시아인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리비아는 이러한 건설 및 농업 등의 분야에서 힘든 작업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주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경제 쇠퇴와 내전이 이를 부추겼다. 리비아의

범 아프리카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가의 성장, 민간 전쟁, 서부 및 중앙아프리카의 여러 부분의 경제 쇠퇴는 앞으로 1990년대 중반에서 횡단 사막 이남의 이주 증가에 기여했다. 1997년 모로코 행 난민 이주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다. 그 당시는 콩고 민주 공화국 모부투 대통령은 그레이트-레이크 지역에서의 후속 전쟁 이후였다.

이는 내전으로 폐허가 된 시에라리온 (1991년에서 2001년까지), 라이베리아 (1989년부터 1996년까지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폭력 시달리는 나이지리아 등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보충되어졌다. 수단과 아프리카의 뿔에서의 재발 전쟁이 이집트와 리비아로 이주해 와서 노동력을 공급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의 1999 년에 내전의 발발로 인해 경제 쇠퇴하고 이주 대상의 부족에 대한 대체로 북 아프리카로 이주가 나타났다. 수많은 서부 아프리카인들이 증가를 촉진시켰다. 그때까지 노동 이민자는 서부 아프리카의 주요 대상지는 코트디부아르였다.

마침내 리비아 이민의 반발경향으로 귀결되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노동 이주 노동자 일자리를 찾아 리비아에 갔다. 그러나 2000년 나라가 리비아와 아프리카 노동자 사이의 충돌 이후, 커다란 반 이민의 반발을 경험하였다. 이로써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주 노동자 수십 명이 사망했다. 따라서 리비아 당국은, 이민에 대하여 강력한 대중적인 반감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로, 수많은 억압적인 조치의 제정했다. 이들은 더 제한적인 이민 규제와 구금, 수용소, 신체적인 학대와 빈약한 환경의 이주자들의 오랜 임의적 억류, 그리고 수십만 이주자의 강제 귀환을 포함했다. 2003년부터 2005 년까지 리비아 정부는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국가에서 온 약 145,000 불법 이주 노동자를 추방했다.

지난 2004년 불법입국자의 단속, 생화학무기의 포기, 화학 및 핵무기의 해체 등 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과의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카다피 정권의 붕괴는 오히려 난민발생의 억제까지 무너졌다. 이러한 불법 이민 단속의 대가로 2010년 EU가 리비아에 3000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난민이동이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영국으로 집중되었고, 결국은 2016



년에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기에 이르게까지 했다.

III. 교역협력과 난민의 기회비용

1. 유럽의 관용에 따른 비용

유럽이 관용 복지 정책으로 난민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다. 또 다른 사례지역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내전으로 EU 동부육로로 난민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관용과 기회비용의 상관관계이다.

북유럽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 간 역내의 갈등도 난민 문제로 더해지고 있다. 이는 더블린 조약에 처음 입국한 남유럽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해상 밀입국의 관문으로, 2014년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해군은 약 10만 명의 난민을 구하면서 구조 작업에만 매달 약 900만유로(약 122억원)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약 4만3000명의 난민이 입국했다.

2013년 유럽연합 28개국 전체 32만여 건의 난민 신청 중 56%는 스웨덴·독일·프랑스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2013년 EU 28개국 평균 15%에 불과하지만, 불법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 20만~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4년 망명자의 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2013년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망명자의 수가 45% 증가했다. 86만6천 명의 망명자가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그 2012년에 비해 26만 9,400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남부 유럽에서 망명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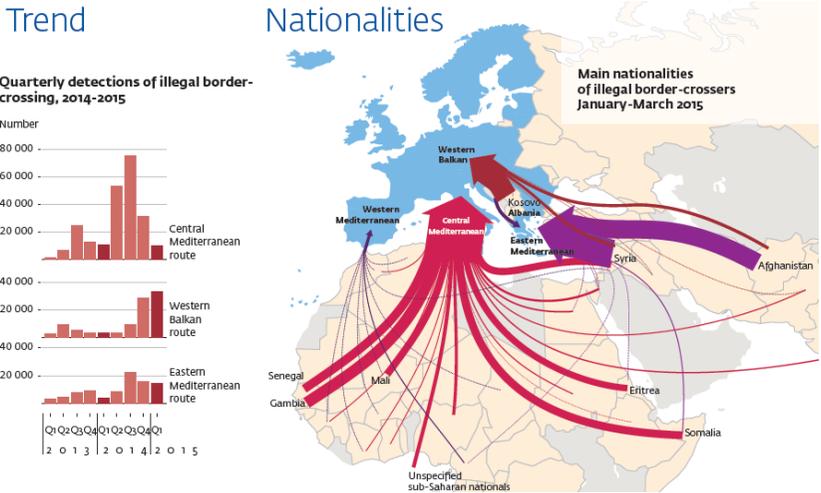
2014년 남부 유럽 국가들에 등록된 망명자 수는 17만 7백 명, 2013년 보다 무려 95%가 급증했다. 터키에 8만 7,800명, 이탈리아에 6만 3,700명이 새로 망명자로 등록됐다. 2014년 발생한 망명자 중 82.5%인 71만 4,300명이 유럽에 유

입되고 그 통로로 남부 유럽이 이용했다. 이는 주요 통로가 지중해이다.

북아프리카 국가로부터 나온 난민들이 이탈리아나 몰타, 멀리는 터키, 그리스까지 이른다. 상대적으로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나 파고 등 바다의 상태가 좋을 때는 가을이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한 북아프리카 난민들의 이주는 주로 여름 이후 가을에 집중됐다. 2015년 지중해 난민이 주로 시리아와 리비아 출신 인 이유는 최근 두 나라의 내정이 불안정하다는 반증이다.

어떤 기준으로 "대량"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주 추세는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주 정책을 변형하고 있으며, 목적지로 스스로를 거부하고 있다. 난민을 송출하는 주요국인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럽 연합 (EU) 은 협업을 전제로 난민경제정책을 수행해야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이민의 증가가 상당히 관련 된 국가와 다양한 추방의 수를 확대하고, 합법화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EU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표 1] 2012년 전후의 인구 증가와 난민의 경제활동





	Net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Emigration rate of tertiary educated to	Refugees	
	thousands	thousands	% of tertiary educated population age	By country of origin	By country of asylum
	2012	2010	25+ 2000	2014	2014
Afghanistan	473	91	22.6	2,593.40	280.3
Albania	-92	89	17.5	10.1	0.1
Algeria	-143	242	9.5	3.5	94.1
Armenia	-10	324	8.9	11.9	3.2
Austria	147	1,310	13.5	0	55.6
Azerbaijan	-16	264	1.8	10.5	1.3
Barbados	2	28	62.6	0.1	0
Belarus	121	1,090	3.2	4.3	0.9
Belgium	270	975	5.5	0.1	29.2
Belize	8	47	65.5	0	0
Benin	-10	232	8.7	0.3	0.4
Bermuda	-	20	-	0	-
Bhutan	10	40	0.6	23.6	-
Bolivia	-62	146	5.8	0.6	0.8
Bosnia and Herzegovina	-3	28	20.3	21.8	6.9
Botswana	20	115	5.1	0.2	2.6
Brunei Darussalam	2	148	15	0	0
Bulgaria	-50	107	9.6	1.6	1.1
Burkina Faso	-125	1,043	2.6	1.9	31.9
Cameroon	-60	197	17.3	10.8	226.5
Central African Republic	10	80	7.3	410.8	7.7
Chad	100	388	9.1	14.9	452.9
Congo, Dem. Rep.	-96	445	14.9	516.6	119.8
Congo, Rep.	-60	143	28.2	14.5	54.8
Cote d'Ivoire	50	2,407	6.2	7.2	1.9
Croatia	-20	700	24.6	40.1	0.7
Czech Republic	30	453	8.5	1.3	3.1
Denmark	97	484	7.8	0	17.8
Egypt, Arab Rep.	-216	245	4.7	15.9	236.1
Estonia	-12	182	9.9	0.3	0.1
Ethiopia	-60	548	9.8	86.9	659.5
Finland	107	226	7.2	0	11.8
France	332	6,685	3.5	0.1	252.3
Gabon	5	284	14.6	0.2	1
Gambia, The	-13	290	67.8	5.1	11.6
Georgia	-296	167	2.8	6.7	0.4
Germany	1,250	10,758	5.8	0.2	217
Ghana	-50	1,852	44.7	22.1	18.5
Greece	-136	1,133	12.2	0.1	7.3
Honduras	-80	24	24.8	4.2	0
Hungary	30	368	12.8	1.3	2.9
Iran, Islamic Rep.	-300	2,129	14.3	82.2	98.2
Iraq	549	83	10.9	369.9	271.1
Ireland	-140	899	33.7	0	5.9
Israel	19	2,940	7.8	1	0.3
Italy	528	4,463	9.7	0.1	93.7
Jordan	230	2,973	7.4	1.7	2,771.50
Kenya	-50	818	38.5	8.6	551.4
Lebanon	1,250	758	43.9	4.3	1,606.70
Liberia	-20	96	44.3	13.5	38.6
Libya	-502	682	4.3	4.2	28

자료: The World Bank (2016), 그림: Elcontexto (2015)

2. 지역 간의 추세이동과 교역경쟁

구체적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주요 난민 발생국은 5개 권역으로 구분하면, 서부 발칸 반도 출신이 7만여 명, 시리아 출신이 5만여 명, 러시아 출신이 4만여 명, 아프가니스탄, 파카스탄 출신의 순으로 난민들이 유럽연합 국가에 진입



했다. 이런 추세는 2014년에도 시리아 출신이 128,670명, 에리트레아 47,150명, 아프간 42,665명, 코소보 38,360명, 세르비아가 31,105명 순이었고,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출신이 순이었다. 지중해를 통해 난민은 이들 가운데 시리아,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출신들이 많았다.

2015년 이전까지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출신 난민들은 거의 미미했다. 갑자기 리비아 출신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난민 발생 주요국 중 5위안 없던 리비아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금은 유럽연합의 국경에 리비아에서만 50만 명에서 1백만 명이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밀입국조직에 의해 1인당 수천 달러 씩 지불하고 작은 배에 수백 명 씩 몰아넣어 유럽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중해에서 한 배에서 최대 90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중해 지역에서 침몰되는 대다수의 난민선 출발지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였다. 리비아의 지중해에서 출발한 난민이 전체 지중해 난민의 91%에 달한다. EU로 리비아에 난민들이 집중되는 이유는 지리적 원인보다는 현지 정부 통제력의 부재 때문이다. 독재자 가다피 정권이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와해된 이후 리비아는 이념, 지역에 따라 수백 개의 다양한 무장조직이 활동하는 반무정부의 상태가 됐다. 외국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내전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무장 폭력조직들은 인신매매로 밀입국 통로를 운영하고 있다. 난민들로부터 밀입국 중개수수료(상당한 수익사업)로 이윤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성립되는 이유이다. 선진국들은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할 기회는 매우 적기 때문이다. 리비아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수단, 차드, 니제르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이 접해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남부 해변으로부터 수백 마일 안에 근접해 있다. 과거 가다피 정권하에선 리비아의 해양수비대가 난민들의 유럽행을 저지해 왔다.

현재 무장조직까지 난립하고 있는 리비아 항구에는 난민선과 불법 단속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힘들다. 아프리카로부터 탈출하려는 난민들은 여러 유럽행 경로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인 리비아로 집중했다. 이는 리비아를 통해 아프리카를 떠나는 이민자의 국적으로는 수년째 내전 상태인 소말리아, 에리트레



아 등부터 중동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까지 독재정권을 피해 자유를 갈망하는 아프리카사람들과 중동사람들이다.

IV. 난민이주로 인한 교역활성화의 관점

1. 지역들 간의 협력

교역활성화의 관점은 이들 유럽의 이민자들로 인해 노동인구 증가로 금융 위기의 극복이 가능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다수 회원국들이 유럽의 심각한 경제 위기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난민 문제가 새로운 노예무역으로 전락되기 전에 지중해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과거 유럽연합은 협상 후 세부적인 항목의 협정체결이 신속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측면과 경제 성장 수단으로 유럽이 계획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 구성을 위한 재정적 개혁의 필요성을 그 한계점으로 인정하였다 (장니나, 2008). 그러나 이란과의 제재 해제이후 유럽과 중동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한국의 관점

IMF는 난민과 기타 법적 이민자의 차이가 있다고 제시한다(IMF, 2016).그들 중 대부분은 이들 국가에서 온 이후 난민의 최근 흐름에 대한 대안으로,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시리아, 동유럽-발칸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향한 기존의 이민자들을 거론했다. 다른 이민자들에 대해, 이하 6 년 동안 유럽에 있었던 그 나라의 사람들도 일을 통제한 후, 사용하기 어려운 그들



의 주요 소득의 자료와 15 %포인트 등의 혜택에 의존 할 가능성이 17 % 포인트 연령, 학력, 성별 등을 들 수 있다. 이 격차는 이민자가 유럽에 와서 더 이상 축소되지 않지만, 20년 이상 거주해 온 난민이 아직도 있다.

한국기업이 유럽에 진출하면, 난민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나 난민유입으로 은행 파산되지 않는다. 매우 단기적으로 국제 통화 기금 (IMF)은 난민, 실업률이다 공공 부채에 추가 될 2016년의 유럽 연합 (EU)의 공공 지출은 GDP의 0.19 %이며, 독일 0.35 %가 추가되고, 난민들 사이의 높은 실업이 전체 실업률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작다고 본다. 새로 도착한 난민 인력이 사회와 기업체내에 흡수 통합됨은 차후에, 그들은 전체 EU의 0.1 %, 독일의 0.3 %로 연간 생산량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 청소년층은, GDP의 으로 국가 연금의 비용의 상승을 유도하여 상반되게 약간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난민들이 시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에 정착하고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면 이들은 가전제품부터 가구 자동차등 모든 생활용품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들 난민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차후에 한국 기업에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이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류 중소기업들도 시리아 난민에게 의류를 제공하고 기술교육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자회사의 고용과 혁신적인 투자로 난민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난민운영은 전 국민의 2%이상이 이용하는 패드(fad, 일시적 유행)처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10% 이상이 호응하는 트렌드(trend, 3~5년간의 추세)나, 전 국민 20% 이상이 사용하는 컬처(culture, 20~30년간의 문화)로 인식하고 대비하고 구분해야 한다. 난민들의 사회가 한 국가내의 문화로 정착 흡수되기 위해서는 그 만큼 한 세대 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해서 [표 2]로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경제효과를 SWOT 분석하였다.



[표 2] 난민경제의 SWOT 분석

	긍정적	부정적
내부	<p>Strengt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와 일자리 증대 · 난민비용 2배 이상 경제기여 · 서비스재화 수요증가 · 융합된 새로운 난민 정착도시형성 · 장기적 지역경제성장의 효과 · 경제원조로 인한 브랜드강화 	<p>Weak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 재정적 부담 · 실업률 증가의 우려 · 재교육과 정착문제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예산안 갈등 · 사회적 편견과 차별문제 · 생계형 범죄
외부	<p>Opport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사태 해결 · 공존의 새로운 문화 모색 · 국가 간의 반이민정서 해결 · 종교적 지역적 특색의 문화와 전통의 공유 · 난민-유입국가 간의 교류 	<p>Threa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강제 구금과 국경봉쇄 · 국가-사회적 비용 초래 · 상이한 종교·문화적 충돌 · 민족주의 극우정당의 대두 · 이민자 추방은 장기적인 국제 문제

실제 세계은행의 난민 수치는 매우 불확실하고, 더 많은 난민들이 망명신청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얼마나 많은 난민이 유입하는가, 얼마나 빨리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모든 단계를 가속화하여 그 충격을 더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도 난민에 대해서 지리적으로는 유입차이가 있으나, 대응방안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이 위한 공간도 수립되어야 한다. 난민 캠페인 및 지원을 하는 스웨덴의 이케아 기업이나 실리콘 벨리처럼 성장한 이스라엘의 사막난민도시(브엘세바)처럼, 이는 다국적기업들의 생산-마케팅의 활동에도 변화가 되며, 지역과 공간 개념의 스마트(지역산업)도시를 형성하는 데 변화가 줄 수 있다.

V. 결론과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과거처럼, 중동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협력으로 상생의 통로로 창출하려 할 것이다. 이는 영국의 EU탈퇴로 도미노현상이 나타나기보다



는 현재의 난민 자들과 협력이 EU와 세계가 공조해야 하며 이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의 브렉시트로 나타난 유럽경제 위기와 고립주의에 벗어나 아시아도 유럽의 교차 경제협력을 위해 중동과의 삼각구도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와 유럽의 관계에도 중동이 동일한 구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협력으로 종교적 문제나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국적기업들이 난민 지원활동은 생산-마케팅의 커다란 변화가 되며, 정부는 이스라엘처럼, 지역과 공간 개념의 스마트(지역산업개발과 생활터전의 융합)도시를 난민들에게 제공하여 사회적 변화에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지중해 지역 간 협력에 한국이 적극 난민의 문제에 참여해서 문화 융합수출 등을 위한 기술교육의 확산과 다양한 지역사회로 발전을 기대하고 국가의 비용증대와 실업증가가 아닌 지중해권의 난민문제에 적극적인 대처와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난민 경제, 중동 아프리카, 유럽연합, 교차협력, 난민도시]



참고문헌

- 서대성 (2013). “지중해권역의 기술혁신성과를 위한 EU와 터키의 협력역할 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34-1, 101~123.
- 서대성 (2015). “터키와 동유럽발칸 지역 간의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술융합투자 방안”, 『한국중동학회논총』 36-1, 19~44.
- 장니나 (2008). “유럽, 지중해, 중동의 지역협력체제의 배경과 전망에 관한 연구,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 지중해를 위한 연합”, 『지중해 지역연구』 10-3, 139~156.
- APDHA (2006). "Informe sobre la inmigracion clandestina durante el ano 2005." Asociacion Por Derechos Humanos de Andalucia, Sevilla. Available online.
- Alioua, M. (2005). "La migration transnationale des Africains subsahariens au Maghreb : L'exemple de l' etape marocaine." *Maghreb Machrek*, 185.
- Andrijasevic, Rutvica (2006). "Lampedusa in focus: Migrants caught between the Libyan desert and the deep sea." *Feminist Review* 82, 120-125.
- Barros, Lucile, Mehdi Lahlou, Claire Escoffier, Pablo Pumares, and Paolo Ruspini (2002). "L'immigration Irreguliere Subsaharienne a Travers et Vers le Maroc." Geneva: ILO. Available online.
- Basheti I. A., & Qunaibi E. A., & Malas R.(2016). Psychological Impact of Life as Refugees: A Pilot Study on a Syrian Camp in Jordan. *Tropical Journal of Pharmaceutical Research* 14-9, 1695-1701.
- Bensaad, Ali (2003) "Agadez, carrefour migratoire sahelo-maghrebin." *Revue Europeenn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19-1.
- Boubakri, Hassen (2004). "Transit migration between Tunisia, Libya and Sub-Saharan Africa: study based on Greater Tunis."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Available online.

- BOLBORICI, Ana-Maria¹ (2015). Bulletin of the Transilvania University of Brasov. Series VII: Social Sciences. *Law* 8-2, 77-84.
- Bredeloup, Sylvie and Olivier Pliez eds (2005). Migrations entre les deux rives du Sahara. *Autrepart*, 4(36). Special issue containing a series of empirical studies on trans-Saharan migration.
- Brenke, Karl (2015). Distribution of refugees very uneven among EU member states -- even when accounting for economic strength and total population, *DIW Economic Bulletin*. 5-39, 511-523.
- Carling, Jørgen, (forthcoming, 2007). "Migration Control and Migrant Fatalities at the Spanish-African Borders." Forthcoming i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 Collyer, Michael (2006). "States of insecurity: Consequences of Saharan transit migration." Working Paper No. 31, 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 (COMPAS). Oxford: University of Oxford. Available online.
- de Haas, Hein (2005). "Morocco: From Emigration Country to Africa's Migration Passage to Europe." Country profile Morocco.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Available online.
- de Haas, Hein (2006). *Trans-Saharan Migration to North Africa and the EU: Historical Roots and Current Trends*
- de Haas, Hein (2006). *Turning the tide? Why development instead of migration policies are bound to fail.* IMI working paper 2. Oxford: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Available online.
- de Haas, Hein. (forthcoming, 2007). "Morocco's Migration Experience: A transitional perspective." Forthcoming in *International Migration*.
- Duvell, Franck (2006). "Crossing the fringes of Europe: Transit migration in the EU's neighbourhood." Working Paper No. 33, 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 (COMPAS). Oxford: University of Oxford. Available online.



- Fargues, Philippe (2004). "Arab Migration to Europe: Trends and Polic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4, 1348-1371.
- Fratzscher, Marcel, & Junker, Simon (2016). Integrating refugees: A long-term, worthwhile investment. *DIW Economic Bulletin* 5-45/46, 612-616.
- Grabska, Katarzyna (2005). "Living on the Margins: The Analysis of the Livelihood Strategies of Sudanese Refugees with Closed Files in Egypt." Cairo: AUC/FMRS. Available online.
- Hamood, Sara (2006). "African transit migration through Libya to Europe: the human cost." Cairo: FMRS / AUC. Available online. (13 May 2006)
- Human Rights Watch (2006). "Libya: Stemming the Flow. Abuses Against Migrant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Available online.
- Lahlou, Mehdi (2003). "Le Maghreb: Lieux de Transit." *La Pensee du Midi* 10: 35-45. Available online.
- Moses Okello, J. O. (2016). "Tragedy on the way to Europe: a perspective from Africa", *Forced Migration Review* 51, p38-39.
- Nyberg-Sørensen, Ninna ed. (2004). *Mediterranean Transit Migration*.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6). Table A.1.1. Inflows of Foreign Population into Selected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Sopemi 2006 Edition*.
- Pliez, Olivier (2005). "Le Sahara libyen dans les nouvelles configurations migratoires." *Revue Europeenne des Migrations Internationales*, Vol 16 (3).
- Rogers, Kate (2015). *Third Sector*. Dec2015, 819, 45-45.
- Schuster, Liza (2005). *The Realities of a New Asylum Paradigm*. Working Paper No. 20, Centre on Migration, Policy.
- Togral Koca, B. (2015). Deconstructing Turkey's "Open Door" Policy towards Refugees from Syria. *Migration Letters* 12-3, 209-225.



The World Bank (2016). Data- Indicator, Retrieved April 25, 2016 from
<http://beta.data.worldbank.org/?indicators=SM.POP.REFG.OR&view=chart>.

인터넷자료

IMF (2016). <https://www.imf.org/external/pubs/ft/sdn/2016/sdn1602.pdf>. 2016.1.20.
검색자료.

Elcontexto (2015). <http://www.elcontexto.org/the-refugee-crisis>. 2015.10.1. 검색자료.

논문접수일: 2016년 09월 2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0월 04일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06일

